

정인화 광양시장, 명절 연휴 민심 청취 나서

발로 뛰는 '현장 소통 행보' 나서
지난 20일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남도경관 조성사업 등 3개소 방문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0일 광양의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9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

이날 정 시장은 △망덕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추진 현장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 현장 △백운저수지 주변 관광 개발 현장 3개소를 방문했다.

망덕지구 내 추진 중인 각종 관광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추진 현장을 찾은 정인화 시장은 건물 배치와 토지 활용 계획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관광과, 진월면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다음 일정으로는 야간경관 개선, 열린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0일 광양의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9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무대 및 그늘 쉼터, 특화가든 조성 등 신규 정비 예정된 중마 23호 광장을 찾았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정인화 시장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관람하고 야간에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음향', '조명', '그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광장 내 보조 스피커 설치,

바다·가든 경관 조명 및 CCTV 설치, 느티나무 식재 환경 개선은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운 휴연 부스, 열린 피아노, 디지털 월 등의 사안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9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백운저수지 주변 관광 개발 현장이다. 광양시는 백운저수

지의 수변·산림·경관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관광거점 유원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인화 시장은 복합휴양시설 및 페티조트 등 4개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둘레길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둘레길 구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을 만한 특색있는 다리 설치를 검토해볼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정 시장은 맨발 황토길은 맨발길과 일반길로 나눠 조성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조성이 완료된 오토캠핑장은 조속히 개장토록 요구했다. 또한 페티조트 사업의 경우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색을 창출해 광양시의 미래전략사업인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며 광양 관광 1000만 명 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구례군 청소년 장학금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가 지난 21일 화엄사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라이온스 가족 한마음 등반대회에서 구례군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는 69개 클럽 3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집수리 사업, 이동 목욕, 헌혈, 김장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한마음 등반대회에는 배혁주 총재를 비롯한 지역위원장,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와 더불어 라이온스 가족들은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청소년 장학금을 군에 기탁했다.

배혁주 총재는 "현재 구례에는 2개의 라이온스클럽이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동행하려는 마음을 실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청소년들이 미래 발전을 위한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제29회 민속문화축제 연다 순천 낙안읍성, 내달 3~5일

순천시는 '순천 낙안읍성'의 역사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재현하는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낙안읍성에 몰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한다.

축제의 개막식은 10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식전 공연인 육군 31사단 근악대 행진, 낙안군수 부임행렬, 대북치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오후 3시30분에 개막선언, 개막주제공연 낙안읍성의 탄생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민속문화를 재현하는 백종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판소리, 창극 '김빈길 장군' 등을 비롯하여 플래시몹 퓨전시대극, 조선마술사, 시립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이 포함돼 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대회, 큰 줄다리기 등 참여 프로그램과 먹거리 및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동문 입구 버스킹 공연, 스탬프 인증 활동 등 읍성 내·외부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 낙안읍성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관리팀(061-749-8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 여수시,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반이 될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정기 부시장 주재로 '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 최 부시장 및 38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도비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실현 가능성, 공모사업 선정 전망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섬박람회 연계사업은 8개 분야 106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876억원 중 635억원이 시비로 계획돼 있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중앙정부 건의 사업 발굴과 해상대책 마련, 유치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풍성한 콘텐츠로 섬박람회장을 채울 수 있도록 부서별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1월에 있을 중앙정부 협력회의에 대비해 섬박람회 정부 지원 사업 발굴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 등이 복내면 도복 피해 농가를 찾아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벼멸구·호우 피해 현장 살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벼멸구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피해 농가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철우 보성군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성군은 지난 22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벼멸구 급증에 연이어 발생한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복내면에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호우 특보가 발효됐으며, 보성군 평균 289mm, 복내면에는 405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21일 17시부터 18시 사이 복내면의 최대시우량이 100mm를 기록하는 등 강한 바람 함

께 많은 비가 쏟아져 벼 도복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피해 현장에는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보성군의 회 김경열 의장과 군의원,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김재철 도의원, 지역농협장을 비롯한 농민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군 관계자로부터 벼멸구와 벼 도복 피해 현황과 예비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한 벼멸구 방제 약제비 긴급 지원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집계된 벼멸구 발생 피해 현황은 2479ha(전체 벼 재배 면적의 31%)로, 집중

고흥군, 도화 버스정류장 신축

고흥군이 도화면 소재지에 도화면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화 버스정류장 신축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도화 버스정류장은 약 3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버스의 회차가 가능한 약 640㎡의 부지에 냉·난방

기 및 화장실 등을 갖춘 66㎡ 규모의 대합실로 지어졌으며, 추석 연휴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사용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도화 버스정류장은 편의점 옆 5평 남짓한 간이 승강장에서 인근 식당 주차장과 정류장 부지를 공유하고 있

고사 피해 면적은 522ha이다. 벼 도복 피해 면적은 716ha(전체 벼 재배면적 9%)로 완전 도복 35ha, 반 도복 681ha가 발생했다.

김철우 군수는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벼멸구 긴급 방제비 도비 추가 지원과 농업재해 인정 및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며 "피해 벼 수매를 위해 공공비축미 등급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벼멸구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철우 군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어, 버스 회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이용객의 교통사고 우려가 항상 존재해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도화면 기관사회단체, 도화면사무소, 지역 군의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 2023년 9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9월 준공에 들어갔다.

송민섭 기자